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영암이 최적지”

군, 전남도에 신청서 제출

TF 구성 지원책 마련 역점

영산강 조망 힐링공간 제공

“문화 균형발전 초석 다질 것”

영암군은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유치 신청서를 최근 전남도에 제출하고 군민과 함께 유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9일 밝혔다.

그간 다양한 형태의 유물 발굴과 마한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며 마한문화 연구에 앞장서 온 군은 센터 유치를 마한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전문가·민간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들이 직접 유치활동에 나서며 마한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SNS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센터 유치 공무원 TF 조직을 구성해 센터 설립을 위한 유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그간 마한 역사 복원에 공을 들여온 군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하고 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문화재청 산하 국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영암군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다.

/영암군 제공

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주한 400여억 원 규모의 국비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의 규모로 아카이브기록보관소, 문화재 전문도서관·자료관, 연구·교육시설, 전시·체험관 등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마한 연구의 거점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지난 2004년 시흥면에 마한역사공원을 건립하고, 1992년 창립한 마한역사문화연구회를 지원하며 각종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찬란한 고대 마한의 문화를 알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영암군은 2015년부터 마한문화축제를 개최하며 해를 거듭해 인문학과 축제를 결합한 전남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 마한문화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마한 테마로 군민과 일반인의 높은 관심

에 대응해오고 있다.

다양한 출토 유물을 통해 탁월한 마한 연구와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군은 내동리쌍무덤에서 발굴된 금동관편이 수장층의 존재를 확인했고 지난 2월 옥아리 고분군(전남도문화재자료 제140호) 발굴조사에서는 사람 뼈가 발견돼 다른 고분에서 발견된 인골과 함께 고분 내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앞으로도 발굴할 유적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영암이 향후 마한 연구의 주도적인 장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전방후원형태의 고분이 발견된 태간리 자라봉 고분을 통해서 일본과의 교류도 확인할 수 있어, 영암이 마한 역사의 중심지이자 삼한 시대 국제적인 교류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한 것

으로 유추할 수 있어 ‘마한의 심장, 영암’ 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 군민들의 아쉬움이 컸다. 이번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꼭 유치해서 지역문화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빛나는 고대 마한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암 유치를 통해 전남 서남부권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 영산강을 조망하는 휴식을 통한 힐링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전문가들에게는 마한역사 연구 최적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위원회에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암·최복섭 기자

나주, 이창동·동강면에

생활 인프라 개선 착수

나주시가 재해·재난에 취약하고 생활 환경이 열악한 이창동, 동강면 2곳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에 착수한다.

나주시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이창동 골모실, 동강면 상촌·서촌·동전·연화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해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낙후된 농촌 오지, 도심 속 달동네 등 취약 마을 주민의 기본 생활 수준, 안전 보장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을 ‘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창동 골모실 마을은 영산대교에서 이창동으로 이어지는 경사면, 노봉산 밑 마을 정비를 통한 생활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사업 면적은 총 7만4,154㎡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44억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후주택 정비’를 비롯해 ‘골목길 포장’, ‘옹벽 정비’, ‘안전간판·소화전·CCTV설치’, ‘담장 철거 및 울타리 구축’ 등을 추진한다.

농촌형 사업 대상지인 동강면 대전리 4곳 마을(상촌·서촌·동전·연화)에서도 생활 안전성 확보, 주택 정비,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에 힘을 쏟는다. 총 18만7,000㎡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5억원 등 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된다.

‘배수로·경사면·노후담장 정비’, ‘소화전·보안등·반사경·CCTV 설치’ 등 재해방지지설 구축과 ‘마을 쉼터·귀농·귀촌 임시주택 조성’ 등을 추진한다.

/나주·조충권 기자

신안, 철새먹이 공급 효과 ‘톡톡’

신안군이 추진 중인 ‘휴경지를 활용한 철새 먹이 공급사업’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흑산면 예리와 삼리, 사리마을 사업대상지 모니터링 결과 사업 시작 후 예년보다 대상지에서 서식하는 철새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사업 시작 전에는 먹이 부족으로 철새 관찰이 힘들었지만 먹이 공급 사업 이후 취식 활동을 하는 철새가 빈번히 관찰되는 등 철새의 이동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안군은 흑산면 일대에 철새 보전과 주민들과의 상생, 마을 활성화, 소득증대 등을 위한 철새사육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서식을 지원하는 먹이 공급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마을의 휴경지를 활용해 봄철 조·수수를 지난 2017년부터 288농가 25.8ha, 겨울철에는 봄·동·배추를 2021년부터 101농가 4.2ha 재배해 철새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 중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강진 애플망고, ‘초축성 재배’ 성공 눈길

기후변화 대응...품질 우수

강진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 육성하고 있는 아열대과수 ‘애플망고’가 타 지역보다 획기적으로 수확기를 앞당기는 ‘초축성 재배’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2013년부터 망고를 도입, 시범 재배와 연구를 통해 조기 수확에 대한 기술을 배양해오다 최근 조기 수확하는 기술을 완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진읍에서 4,000㎡의 애플망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명환 대표는 최근 공판장에서 처음 망고를 출하하면서, 3kg 한 상자당 30만 원이 넘는 단가를 받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번 수확은 올해 대한민국 육지부 최초 수확으로, 6월 수확 평균 가격 10만 원(3kg)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가격을 받은 셈이며, 특히 맛과 품질 면에서 타 지역 망고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강진 애플망고의 경우 20~22브릭스까지 나오는 걸로 확인됐다.

최 대표는 “지금은 국내산 애플망고가 거의 없는 시기여서 시장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의 망고는 6~7월 사이에 출하되는데, 주산지인 제주도부터 공급량이 몰려들어 해당 기간에는 고가 판매가 어렵고, 여름철 고온으로 작업이 힘든 점도 도전의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강진은 일조량이 많고 토양이 잘진 덕에 망고 맛이 좋아 수확기를 앞당기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수년간의 연구를 거쳐 결실을 맺었다. 군은 현재까지 4농가, 1ha의 면적으로 망고 재배면적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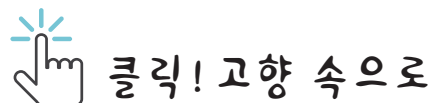
애플망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명환 대표가 애플망고를 살펴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관계자는 “애플망고의 초축성재배는 냉난방 히트펌프를 활용, 여름 저온처리와 겨울 가온처리를 병행해 꽃을 빨리 피게 만드는

기술을 접목했다”면서 “앞으로도 아열대과수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전남농협, 농촌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안종팔)는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와 함께 최근 영암군 삼호종합복지센터를 찾아 학용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새 학기를 맞이한 영암군 소재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

응하고, 농업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안종팔 본부장은 “과거 코로나19로 취소됐던 다양한 나눔 행사들을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전남지역본부는 전남 농촌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망운면 복지기동대, 위기가정 주거 개선

무안군 망운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송남수)가 최근 관내 위기가정의 집안 곳곳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애로 불편한 A씨는 오랫동안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 안팎 쌓아놓은 쓰레기로 심한 냄새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봉사에는 망운면 복지기동대와 소방서, 마을주민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3톤의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노후화된 전선을 정리 및 수리하는 등 청결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송남수 복지기동대장은 “깨끗하게 정비된 주거환경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국토정보공사 나주시사, 고향기부

나주시 관내 공공기관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나주시사(지사장 이승철)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내 공공기관의 기부제 동참은 2월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3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에 이어 3번

째다.

이승철 지사장은 “나주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LX에 재직하는 항우들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을 독려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충권 기자